

사례25. 자궁경부암 4기 환자의 병기 분할 필요성

홍길동은 동료 1명과 함께 자궁경부암 4기 환자에서 원격전이 유무에 따른 생존율과 병기 분할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을 2005년 국내학술지에 보고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3년간이었다. 대상 환자의 수는 42명이었고 원격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좋았음을 관찰하여 보고하였고, 원격전이 유무에 따른 4기 환자에 대한 병기 분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종합병원의 임격정은 동료 6명과 앞 논문과 유사한 제목의 논문을 200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대상 환자는 모두 임격정이 근무하는 종합병원 환자였고 연구기간은 199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12년이며, 대상 환자의 수는 214명이었다. 홍길동이 두 번째 논문에 공저자로 포함되었다. 두 논문의 결과와 주장이 동일하였다.

구성 요소별 판정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첫 논문 제1저자가 두 번째 논문에 포함	저자 1명이 공통
기설	자궁경부암 4기는 진단할 때에 국소 침윤만 있는 경우와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질병의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음	동일
대상	다른 병원에서 다른 기간에 연구	대상이 다름
연구방법	후향적 연구로 방법이 같음	동일
결과	원격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좋았음	동일
새 정보	없음	없음

추가 사항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고 앞의 논문 인용
표	표는 모두 3개, 내용 다름
그림	모두 1개, 그림 내용 다름
참고문헌	첫 논문 21개, 두 번째 논문 24개, 그 중 7개 동일
연구비 기술	모두 기술 없음

해설

항목	내용
중복출판	두 번째 논문은 다른 연구 기관에서 시행하여 대상의 중복이 없음 첫 논문의 제1저자가 두 번째 논문에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고 연구방법과 결과, 결론이 동일 •유형: 대상 또는 관찰기간을 늘인 덧붙이기
다른 윤리문제	없음